

“영어실력보다 신심있어야 국제포교사”

경남·북 지역 최초 부부 국제포교사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말씀 전할 수 있 다니 가슴이 설렙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로 부부 국제포교사가 탄생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제15기 윤태환(59, 범명 선덕), 제14기 이순득(56, 범명 자재) 부부이다. 두 사람을 국제포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보시의 원력이었다.

남편 윤태환 씨는 “통도사 적멸도량회에서 사찰안내를 하면서, 주는 이와 받는 이, 그리고 보시물의 청정함이라는 ‘삼륜 청정(三輪淸淨)’을 경험할 때 태없이 기뻐다”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안내해주고 싶어 국제포교사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남편 윤태환 씨는 “홍법사의 국제부 행사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담담기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던 외국인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고, 선배 국제포교사인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국제포교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홍법사에서 진행된 ‘국제

포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2009년 제14기, 2010년 15기에 아내와 남편이 차례로 합격했다. 남편 윤태환 씨는 “선배인 아내의 기술문제 및 예상문제 위주의 족집게 강의도 한 몫 했다”고 귀띔했다.

부부는 국제포교사가 되면 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공부에 전념했지만, 합격한 후 생각처럼 포교 전선에 뛰어들 수는 없었다. 시험은 포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일 뿐, 세상에 나서기 위한 자신만의 준비과정이 남아있었다.

아내 이순득 씨는 “남들이 만들어 준 안내자료는 결코 온전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며 “사찰안내부터 불교문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등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남들 앞에 설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 윤태환 씨도 “솔직히 국제포교사 고시 합격과 동시에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장에 서보니 의



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포교 활동 중인 청소년·어린이 등 대상이 무궁무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초석을 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국제포교사를 꿈꾸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윤 씨 부부는 합격비결로 신심

과 영어를 꼽았다. 부부는 “필기시험이 온통 영어인데다 실행생활과 불교지식을 묻고 답하는 영어인터뷰까지 다단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잘해야 한다”며 “지식보다 전제돼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심어린 마음 기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hot777@hanmail.net

“불심의 도시 부산, 수행과 전법 대중결사”

조계종 부산연합회 발기인대회 성료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이하 연합회)는 1월 11일 오후 4시 부산코모도 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성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본 연합회는 ‘수행과 전법’의 가치를 내걸고, 조계종도들이 수행과 전법, 자비 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지역사회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도 200여 명, 재가불자 100여 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등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수불 스님은 “오늘날의 불교는 사회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 속에서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 부산권역에 거주하는 종도들의 수행과 전법, 그리고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부산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동련 이사장), 원허 스님(해원정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해원 이사장) 등 10인의 스님들은 현재 부산



교계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연합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대회에서 2011년 주요 사업으로 △4월 수행과 전법을 위한 결집대회를 통한 포교 역량 강화 △조계종도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성도제일 기념법회를 개최해 성도제일의 재인식과 수행·전법 환경의 조성 △기존 부산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불축 및 팔관회 행사의 적극 동참 등 총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불교문화 장달을 위한 학술연구 및 불교문화사업,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장학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자립해야 산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성도절 법회서

대구 불교계가 민족문화 수호와 정법 실현을 결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대구시원주지연합회는 1월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열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은 법어를 통해 “티끌스태이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종교편향적 정책을 반대하며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립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불자들은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정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고종 대구교구 총무원장 정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편향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경고하며 만민류

가 화합과 해탈의 길에 들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대구시원주지연합회는 “조계종이 정부를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족문화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불교계 스스로 민족문화 수호의 의지를 다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손운철 대구지사장 wearpi@empal.com



대구시원주지연합회는 1월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열었다.

전북 불교방송 개국 원년으로

금산사, 신묘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사회갈등 해소에 노력해 달라”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신묘년 새해를 맞아 포부와 원력을 세우 보살행을 다짐하고 전북지역 불교 중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1월 9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등 50여 본·말사 스님과 김백호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지사를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계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물지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한 나라당에 대해 경중을 올리고 있다” 전제하고 “전통문화유산은 어느 특정계층만의 소유가 아닌 우리민족 모두의 것이다. 정부 여당과 불교계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대·계층간의 갈등 해소에 불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는 1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전북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방송국의 개국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2011년은 화엄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교육과 금산사 복지원의 사회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향일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사회통합과 한국학 진흥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민세상’을 수상한 월주 스님의 원력과 공로를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불교문화, 알아야 지킨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신라문화재 답사

예비 불교 어린이 지도자들이 불교 문화재 감시에 나섰다.

동원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예비 지도자들은 1월 8-9일 문경 김용사, 예천 용문사, 의성 고운사, 구미 도리사, 군위 제2석굴암, 칠곡 송림사, 경산 선봉사 깃배리 등 경북 내 7곳의 사찰을 답사했다.

예비 교사들은 답사에서 법당 명칭, 사

천왕의 표기 등을 학습하고, 잘못 표기된 부분,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번 답사는 어린이·청소년 지도자들이 전각의 이름, 사천왕의 명칭, 무분별한 사리탑과 적멸보궁의 남방, 천년고찰의 불사로 인한 부조화 등을 바르게 알아 교사들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공수부대 장병들도 반한

선원사 자장면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군 사기가 위축된 것을 우려해 지역 군부대를 방문, 자장면을 공양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선원사 자원봉사단(단장 최인술)은 1월 9일 폭설이 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금마면의 제7공수여단 호국 천마사를 방문해 100여 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선원사는 정기적으로 임실 제6탄약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지난 연말 육군 35사단을 비롯해 육군 부산관학교 등을 방문해 군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한바 있다.

운천 스님은 “거리가 멀어 자주 오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다”며 “공수부대장병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어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원사는 절에서 직접 만든 돼지감자 차의 판매수익을 통해 무료급식소에서 자장면 봉사를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1학년도 청암사승가대학·울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교육원 교과목개편안 반영

청암사울원

- 모집인원 : 0명
- 입학자격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11년 비구니계 수지 예정자.
- 전 형 : 서류전형, 면접(불교교리)
- 서 류 : 입학원서(본 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사본,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4X5 2매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청암사승가대학

- 모집인원 : 00명 / 편입생 : 0명
- 서 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승려증사본, 은사스님추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3X4 4매
- 준 비 물 : 만의장상, 필기도구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5시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8시

청암사승가대학·울원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의 [승가교육개편안] 인가신청에 관계없이 기존의 교육기관으로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특성있는 전통강원 “청암사”로 오십시오.

청암사승가대학장·울원장 의정지형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청암사승가대학·울원 문의 054) 439-9511, 439-9313 / www.chungamsa.org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종 정 석인왕

원로원 석법수, 석법성, 석연화, 석도수 석범오, 석관조, 석보성, 석능엄

총무원장 석명안

총무부장 석호봉	재무부장 석일연	교무부장 석법성	
포교부장 석도혜	교육부장 석법혜	호법부장 석보성	
서울경교구 석혜안	강원교구 석법인	충남교구 석인관	충북교구 석해광
경북교구 석선법	경남교구 석월명	전남교구 석선덕	전북교구 석해광

비영리법인 여래도봉사단 단장 해안

무료급식소 22년 (주6일)

해외절 : 미안마 파간 탐민사.

스리랑카 엘피스 사원, 대외벨라 사원, 파나두라 대학

총 무 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기 금강 대약사사 / 전화 043)731-2261
성남본산 약사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7-2 약사사 / 전화 031)734-3205 팩스 031)735-3374